

## 연례 공식방문으로 노틀담 직원들이 모이다 카노아스,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



관구장 셸리 마리아 수녀는 노틀담 수녀회 브라질 진출 100 주년을 맞이하는 한 해 내내 벌어지는 한 가지 활동으로 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각 단위체의 직원들과 협력자들에게 연간 공식방문 중에 열리는 특별 모임을 갖도록 초대했습니다.

이 모임은 수녀들이 노틀담 카리스마와 사명을 나누고 노틀담 사도직에서 수녀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적인 기회였습니다.

카노아스 본원 공동체는 브라질에서 매년 8월에 맞이하는 수도 생활 주간의 첫날이기도 한 8월 19일에 시작되었습니다. 이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노틀담 본원에 모여 이름을 밝히고 현재 사도직을 묘사했으며 직 간접적으로 우리 활동 사도직안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이야기 했습니다.

셸리 마리아 수녀는 참석자들에게 연설을하고 100 주년을 위해 특별 제작된 연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. 모임에 자리한 이들은 전부 90 명 가량입니다. 이후에는 전원이 점심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.